



4면

전주한지,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분야 인증 획득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음 6월 22일) 제259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남원 금지면 귀석리 섬진강 제방붕괴 침수지역을 찾아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설상가상 이젠 태풍 '장미' 전북도, 추가 피해 막아라

24시간 비상체계 가동...시설물·농작물 관리 초긴장 대응

전북도는 지난 7일 부터 9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한데 이어 10일에도 제5호 태풍 '장미'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도 및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7일 도내 전역 호우경보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한 이후 현재까지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10일 오전 도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실·국장급 14개 시·군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긴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태풍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인명피해와 재해위험지역, 농축수산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태풍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기상정보와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침수 우려지역 사전대피와 하천 둔치주차장 차량통제 등 안전관리에 철자를 기하도록 했다.

이어 시·군과 협조해 호우에 대비한 배수펌프 가동준비, 강풍에 대비한 선박 결속, 해안가·방조제·해안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건설 중인 공사장 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점검, 깃바위·방파제 등 낚시객·관광객 사전 출입통제 등 위험지역 특별관리와 함께 민일에 사태에 대비 즉각 구조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가동 중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특히 "태풍내습 기간 중에는 강풍, 호우, 풍랑에 대비해 가급적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의 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집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홍보"토록 하였다.

또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안으로 대피하며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에서는 건물침수에 대비해 모래주머니와 차수판을 사전에 준비하고 집 주변 배수구에 부유물질이나 낙엽으로 막힘이 없는지 수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풍시 강풍에 의한 인명사고가 우려가 많으니 자연재난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며"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태풍 '장미'는 오후 5시경 경북 포항 부근에서 소멸했다. /유호상 기자

송 지사 "전국 특별재난지역 지정"

코로나19 이은 호우피해
전북찾은 정세균 총리에
전국적으로 어려움 누적
정부 특별지원 필요강조

정세균 총리와 함께 현장을 찾은 송하진 도지사는 "호우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면서 사상 최대 피해액이 예상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전북도는 민관이 힘을 모아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희망을 줄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심각한 호우피해를 입은 전북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전국을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수준으로 특별지원 필요"가 크다고 "이번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최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해 지역 점검에 이어 남원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를 찾아 임시 대피 중인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귀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금지면 수해지역은 지난 8일 오후 1시경 섬진강 제방 붕괴로 금지면, 송동면, 대강면의 주택 477세대와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1,100여ha가 물

에 잠기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모두 710명으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 인근 학교 등에 임시 대피 중이다.

전북지역은 지난 7일부터 9일 사이

평균 누적 강수량 338.3mm를 기록했고 남원 432.6mm, 순창 544.4mm 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10일 오후 5시 기준 도로 58건, 산사태 99건 등 총 1,10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유호상 기자

"또 살인진드기에" ... 올해 두 번째

장수 거주 60대 남성 SFTS 감염 사망

전북도 보건당국은 올해 2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 환자 발생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환자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지난달 28일경 진드기에 물린 것을 인지했고 이를 후 최초증상(발열)이 있어 이달 2일 도내 종합병원에 입원, 치료받던 중 4일 확진 진단을 받았다.

도는 이 환자가 5일 전북대병원으로 전원해 치료 중이었으나 10일 9시 4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거주지는 야산 주변으로 매일 집 앞의 텃밭에서 밭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기저질환이 없고 평소 건강했으며 진단시만 해도 상태가 양호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경우 치명률이 높아 평소 환자의 건강 상태와 다르게 예후를 짐작할 수 없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치사율이 10~30% 정도로 높은 질환으로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진드기 매개질환인 중증열성혈소

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팔·긴옷을 착용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를 실시하며 농사일에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고 사용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될 경우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도 감염성 보건의료과장은 "6~8월에만 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2명이 사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발생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작업, 성묘·벌초나 등산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강조하며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이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기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의심되면 '1339' 로

슬기로운 청렴생활

맑은 전북교육

청렴은 전북교육의 자부심!
맑고 깨끗한 전북교육 함께 만들어 가요.

부패 없는 청정지역,
자랑스러운 전북교육 나부터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